

공동행동 서명 창



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

2015년 3월 26일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청소년이
성매매에 이용된 뒤,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.

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
성착취 및 성매매 이용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검거된 용의자와 알선자들에 대한
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이며,
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본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

이 사건을 접하며 **청소년성매매는 성착취임**을
우리사회가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 같은 위험에
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
"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"
(이하 공동행동/95개 관련단체/2015.05.20.)을 발족하게 되었고,
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진행중입니다.

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
청소년 성착취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.

성착취 재발방지 서명하기

성착취 재발방지 1인 시위



십대여성인권센터
Street Up Against Sex-Trafficking of Minors

☐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않음.